삶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라

(요엘 3:1~21)

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삶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삶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라'

요엘서 3장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선민을 구원하셔서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마음 찢기를 통한 삼중 충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삼중 충만은 간단히 말해 마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은 형통으로 충만하고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구원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기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삼중 충만의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 찢기가 언급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구원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고자질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고자질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것입니다.

고자질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신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것도 주석이 아닌 사전입니다.

고자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는 고자질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특이한 어감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자질에는 속내가 숨어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즉, 윗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자질은 비난과 질책을 면하고자 하는 술수입니다만 세 살만 되어도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엄마에게 뛰어가서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말하며 본능적으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자질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최초의 처세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보호의 방어기재가 고자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고자질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 뒤의 내세의 삶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삼척동자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고자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고자질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삼척동자도 고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자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고자질을 어떻게 하느냐는 둘째 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러바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엄마는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에 못 보실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새삼스레 고자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고자질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을 고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고자질 하는 내용은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자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삶의 실제 상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발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으레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돈 쓸 일이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사오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었듯이 돈 좀 마련해주시옵소서.”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백발백중 실패하는 기도입니다. 간혹 기도한 대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돈을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돈 쓸 곳은 많지만 돈이 없는 실제 상황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실제 상황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포인트를 맞춘 고자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다는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잠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실제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빼앗기는 상태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고자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 없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되찾고자 하는 고자질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돈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심산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척이라도 해보고자 한다면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사지를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의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처참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나의 실제 상황을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인격적 관계는 성립됩니다.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 하는 고자질의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손해 보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고 실제 상황에 마음이 정복되었음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실제 상황에 정복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죽어야 마땅한 상황임을 인정함으로써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는 고자질이 바로 백발백중 응답받는 고자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마지막으로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약속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여호사밧 왕이 언급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요엘 선지자의 시대와 여호사밧 왕의 시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더 앞선 세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요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언급한 이유는 그 신앙적 태도가 선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오늘 살펴본 고자질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은 우리의 마음

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고자하는 실질적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셀 수 없이 많았던 연합군이 예루살렘 앞에서 자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스스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자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비롯한 삶의 모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고자질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행복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자질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훗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선민들이 실제 상황의 포로 됨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행했던 고자질이 바로 선민들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뜻이 담겨있기에 본문의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더욱 명확합니다.

이 사건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실제 상황에 사로잡혔음이 문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개인뿐만이 아니라 남 왕국 유다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여호사밧의 마음은 실제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문제의 실제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여호사밧의 대처가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써 무기고를 점검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기기 위한 전법을 연구하고 민간에서 물

자를 징발해서라도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사밧 왕은 이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실제 상황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든든히 먹고 힘차게 싸우기를 요청하는 대신에 금식하기를 공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민에게 있어서 무엇이 손해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 왔다는 실제 상황에 마음이 정복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형에게 맞설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엄마아빠에게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른 고자질의 실천입니다.
역대하 20장 10~12절을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실제 상황에 대한 고자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말이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때의 실제 상황이 적군들이 눈앞에 까지 쳐들어온 위기상황이었기에 마음을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려움을 느낀 시점에서 마음이 정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이 상황이 선민이 싸워야 될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마음으로는 주만 바라보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상태가 선민이 싸워 이겨야만 하는 악한 죄임을 깨닫고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성전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왕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이 생업을 중단하고 금식을 할 때에도 성전에서의 상번제는 아침저녁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모든 백성들은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번제를 통해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선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사실이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어느 것

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실제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번제단을 바라보는 동안 그러한 마음이 어린양과 함께 죽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여호사밧 왕의 고자질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고자질은 마음이 삶의 실제 상황에 정복되어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번제단에서 각이 떠져서 바쳐지는 어린양처럼 죽어 마땅한 악한 상태이었기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현실로 삼게 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저 실제 상황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로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적군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상태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 된 상황에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지기를 간구한 여호사밧 왕의 고자질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나타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로 보이기만 한다면 나를 압박하는 모든 실제 상황은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해결하실 일들이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사건을 통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시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실제 상황이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두 번째 세 번째 현실로 밀려나는데도 그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모른다면 진정한 해결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민들은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유지하면서 상황만 바뀌기를 바랐고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삼는 것이야 말로 해답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자 문제로 존재했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웠던 것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주대하겠다는 마음가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적군을 마음의 첫 번째 현실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자 했다면 싸우기 위한 군대를 앞세우고 성가대를 뒤따르게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기에 성가대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실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믿음의 고자질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에 마음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빼앗긴 마음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고자 하는 문제는 비단 원수들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낸다면 내 마음을 정복하려는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족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밀려난 마음을 갖는 것이야 말로 죽어 마땅한 죄악 된 모습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자녀문제에 대해, 돈 문제에 대해, 직장문제에 대해 빠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이 상황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자질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열매가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기도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백발백중하는 기도생활을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자질하는 기도를 일관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내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모든 실제 상황들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 혼나고 처리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